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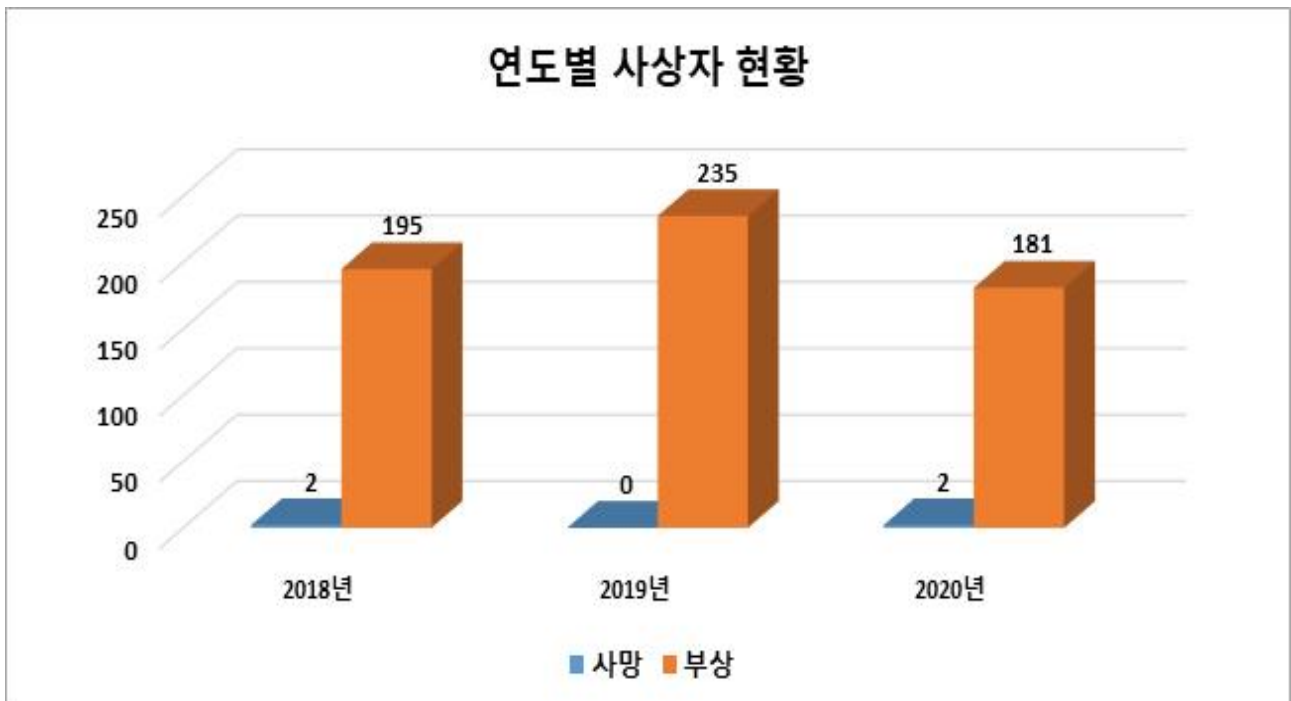
2월 주요 재난 안전사고 예보

= 설 명절 안전사고 주의보 =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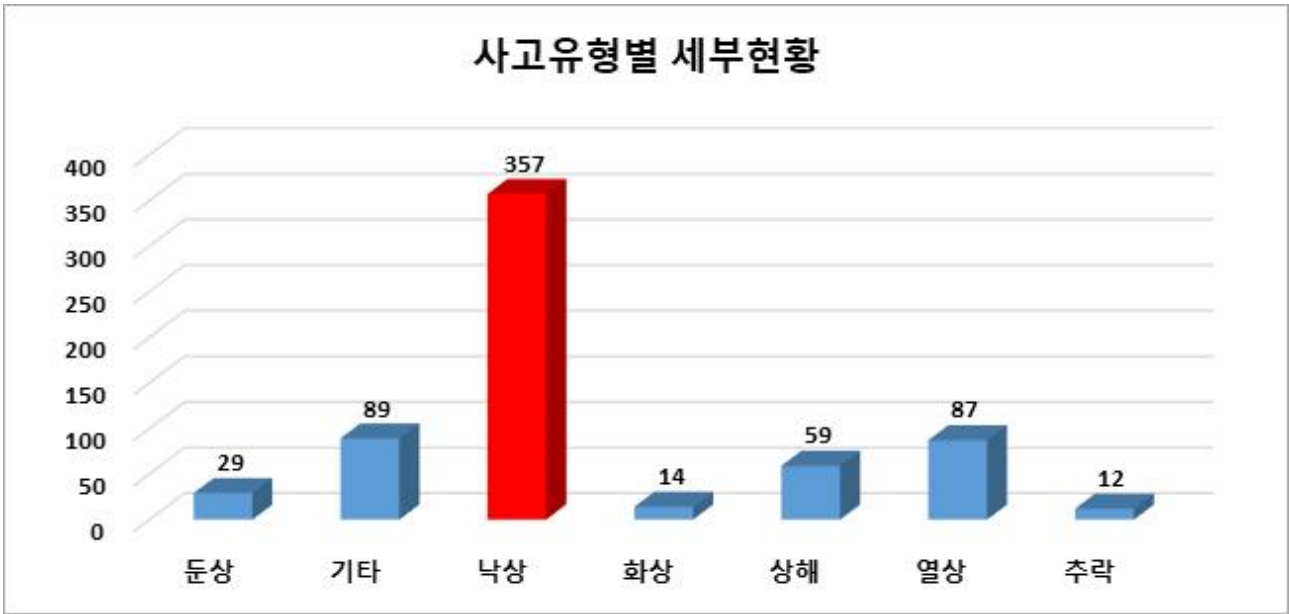
□ 연도별 설 명절 관련 사고현황

구분	계	둔상	낙상	화상	상해	열상	추락	기타
계	647	29	357	14	59	87	12	89
2018년	213	10	103	2	23	24	7	44
2019년	246	13	143	-	27	30	2	31
2020년	188	6	111	12	9	33	3	14

□ 연도별 사상자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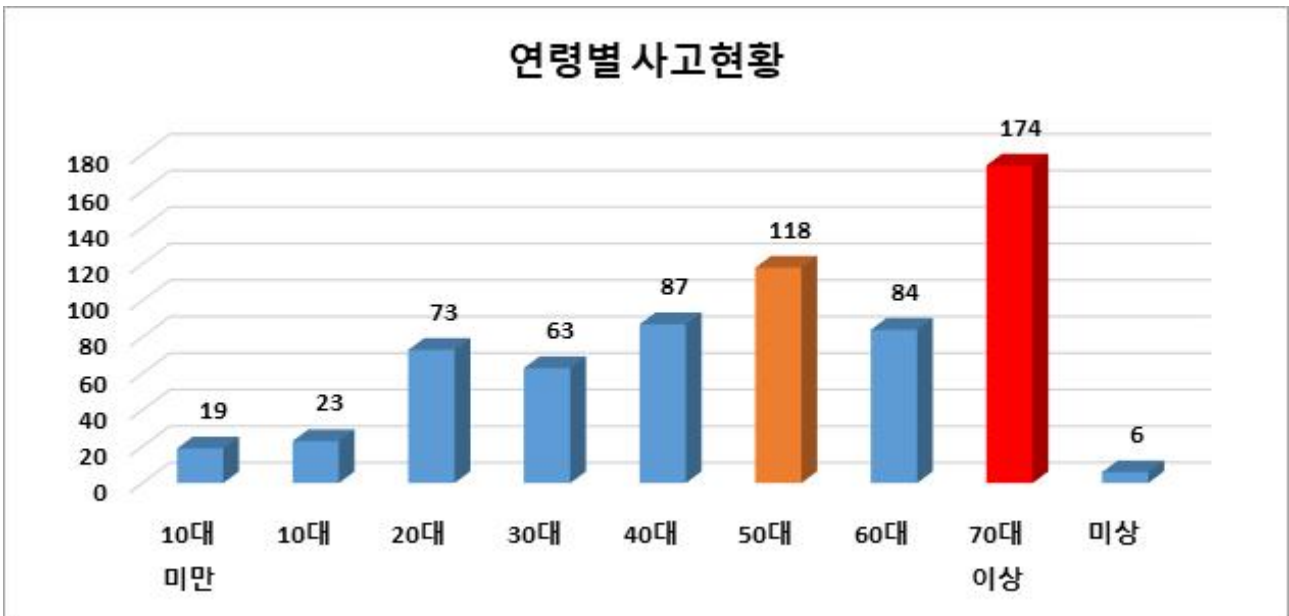


□ 사고유형별 세부현황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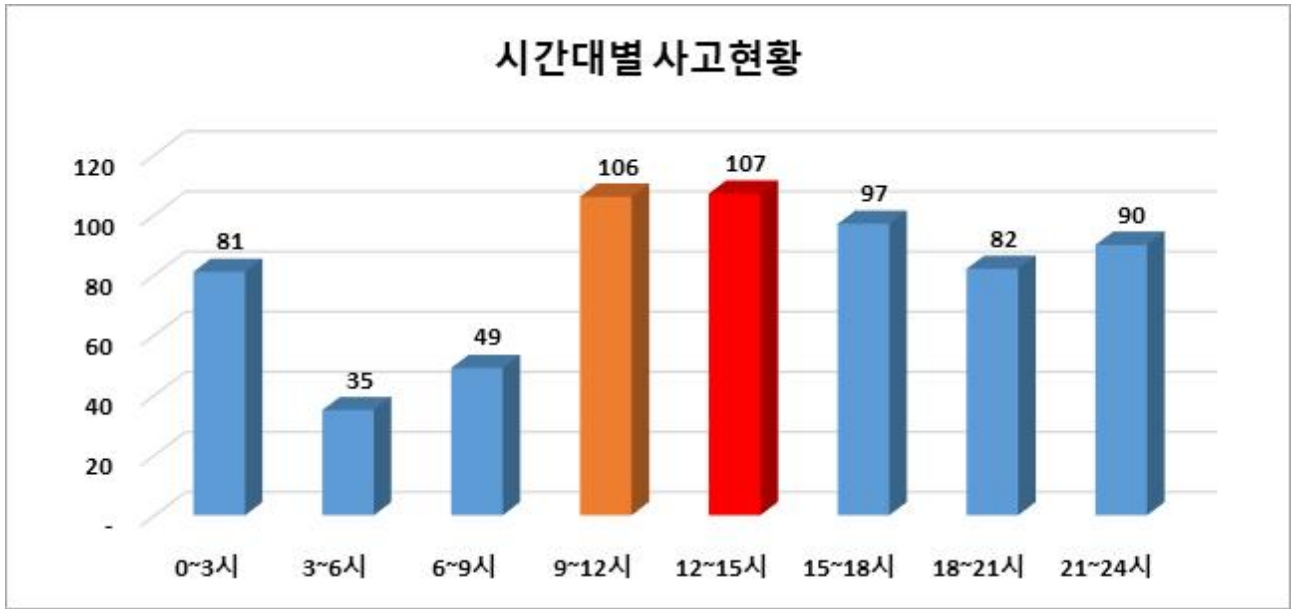
○ 최근 3년간('18년 ~ '20년) 도내 설 명절 안전사고는 총 615명(사망 4, 부상 611)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으며, 이 중 낙상사고가 55%(357명)로 가장 많았고, 열상 13%(87명), 상해 9%(59명), 둔상 4%(29명), 화상 2%(14명), 추락 2%(12명) 등 순으로 나타났다.

□ 연령별 사고현황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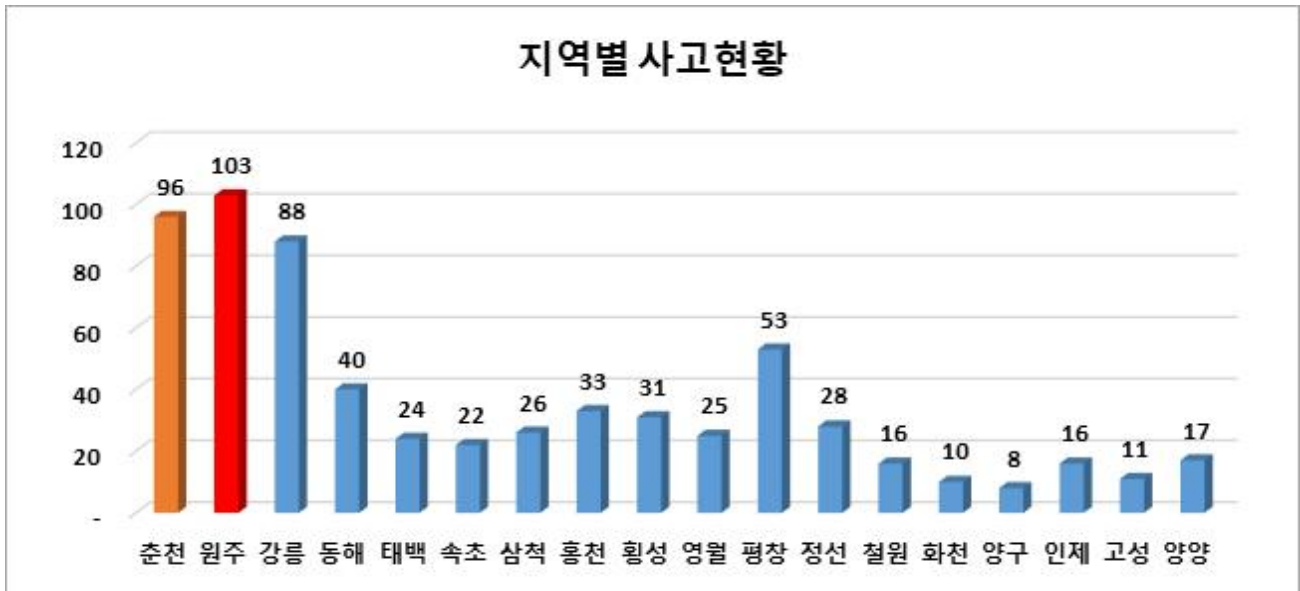
○ 연령별로 살펴보면, 70대 이상이 27%(174건)로 가장 많았으며, 50대 18%(118건), 40대 13%(87건), 60대 13%(84건), 20대 11%(73건), 30대 10%(63건), 10대 4%(23건), 10대 미만 3%(19건) 등 순으로 나타났다.

□ 시간대별 사고현황



○ 시간대별로 보면 12~15시에 17%(107건)로 가장 많이 발생하고 9~12시 16%(106건), 15~18시 15%(97건), 21~24시 14%(90건) 순으로 나타났다.

□ 지역별 사고현황



○ 지역별로 살펴보면, 원주 16%(103건), 춘천 15%(96건), 강릉 14%(88건), 평창 8%(10건), 동해 6%(40건), 홍천 5%(33건), 횡성 5%(31건), 정선 4%(28건), 영월 4%(25건), 태백 4%(24건) 등 순으로 나타났다.

□ 대설 대비 행동요령

- 내 집, 내 점포 앞 도로의 눈은 내가 치우기
- 어린이와 노약자는 외출을 삼가
- 차량, 대문, 지붕 및 옥상 위에 쌓인 눈은 제거
- 고립 지역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
- 평상시보다 조금 일찍 출근하고 일찍 귀가
- 출·퇴근 시에는 자가용 운행을 자제하고 대중교통(기차, 버스) 수단을 이용
- 붕괴가 우려되는 비닐하우스 등 농작물 재배시설은 받침대 보강 등으로 보호
※ 눈이 20cm 정도 쌓이면 전깃줄이 끊어지고, 소나무 가지가 부러짐
- 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빈 비닐하우스는 비닐을 걷어내기.



□ 해빙기 안전사고 대비 행동요령

- 지반 침하로 인한 굴곡 등 이상 징후 있는지 주의
- 절개지, 낙석 위험 지역 점검
- 절개지에 접한 건물 내·외벽에 균열은 없는지 점검
- 토사가 흘러내릴 위험은 없는지 점검
- 노후 건축물, 축대, 옹벽 주변 점검
- 주변 건축물이 균열이나 지반침하로 기울어져 있는지 점검



□ 빙상사고 인명구조 요령

- 얼음은 육안으로 상태를 판단하기가 어려움으로 항상 주의
-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얼음 두께는 10cm이상인지 확인
- 해빙기 얼음위에서의 낚시, 빙상놀이 등을 하지 않기
- 사고발생 시 당황하지 말고 주변 사람에게 알리고, 119신고하기